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 주의보

데이트 앱서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 쌓고 금품 요구 광주·전남 3년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569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고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면서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해 등치는 '로맨스 스캠'이 신종 사기로 떠올라 주의가 요구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인터넷으로 거래대금 등을 가로채는 신용사기)의 합성어로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해 애정을 표현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금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광주에서도 최근 이같은 수법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뻔했으나, 은행원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역 한 은행 직원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알고 지내온 남성에게 현금 3,000만원을 송금하겠다며 접근을 찾아온 50대 여성에게 사이버 사기가 의심된다며 해외송금을 중지시켰다. 이후 북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최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B씨(42) 등 라이베리아인 4명을 구속하고, 같은 국적 C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프

토리 등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씨(34) 등 한국인 34명으로부터 총 12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남성 미군 장교인 것처럼, 남성 피해자들에게는 여성 미군 장교인 것처럼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과거 보이스피싱에만 그쳤던 금융사기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지난10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는 총 569건에 달한다. 이중 기관 사칭은 201건, 대출사기는 359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로맨스 스캠은 미국 FBI가 피해를 경고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주로 해외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우회 IP를 사용할 경우 해외 공조수사도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외로운 감정상태를 이용한 사기행태라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는 "대부분 다수의 범죄대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이 오는 사람을 선별해 범행을 저지른다"며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더라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SNS 계정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면 사기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체해야 한다"며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상 교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면 반드시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기린다

광산구, 생가 인근 기념시설 건립... '들불야학당' motifs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기념시설이 조성된다.

1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윤상원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이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윤 열사 생가 인근 광산구 신흥동 873㎡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50㎡ 규모로 건립한다.

건립은 윤상원·신영일·박용준·김영철·박효선·박관현·박기순 등 '들불열사' 7인이 야학당으로 사용한 광천동 성당 교리실을 모티브로 설계했다.

내부는 구획없이 개방된 복합공간으로 꾸며 민주도서관과 윤 열사 유품 등을 전시한다. 창작판소리 '윤상원가' 학습교육장과 영상물 홍보관도 운영한다.

윤지매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물신축 등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 열사는 도청을 사수하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서른살의 나이로 산화했다.

광주북중·살레시오·전남대를 졸업하고 나서 5개월간 은행근무를 했으나 광천공단에 위장 취업하고 들불야학당으로도 활동했다. /윤영봉 기자

광주 교통사고 안전지수 대폭 개선

2022년까지 사망자 절반 감축

광주지역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가 올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2일 을 들어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명)보다 38명 줄어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자연재해·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7개 안전분야를 각 지역별로 측정한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자살·교통·산업재해 분야에서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키로 목표를 잡고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성수 기자

시교육청, 감사거부 사립유치원 '고발'

자료 미제출 4곳 "계속 거부면 제재 강화"

사립유치원들의 감사연기요청을 거절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치원들을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일부 감사거부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유치원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재 16곳에 대해 현지감사를 했지만, 4곳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방림동 모유치원은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화정동, 남구 봉선동, 광산구 박호동에 있는 유치원 3곳은 회계통장이 아닌 설립자 또는 그 지인 등 계좌로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전체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 있으며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았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이 수차례 시정 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정원 10% 감축, 학급운영비 지원배제,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배제,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지원선정 제외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단,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제재를 취소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 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협조를 촉구하겠지만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사립유치원 원장 100여명은 최근 장휘구 교육감과 면담해 감사연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미애 기자

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참여자치21이 12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뒤집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앞세워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저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기득권 야합으로 한국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선거제도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광주시민의 지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김종찬 기자

"무등산 정상 사진 찍으려고..."

○...무등산 정소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정상을 오갔던 광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탐미.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11월 34차례에 걸쳐 공군부대 차량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무등산 원호지구 차량통제소를 드나든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처음엔 아내가 한 일이라고 뻔뻔하다 추궁이 계속되자 취미로 사진을 찍는데, 장비를 들고 올라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고 시인했다"며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작은 욕심에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고 실소. /이나라 기자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